

'01~'04년 돼지오제스키병 발생현황 및 전망



박현정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정밀진단과

1. 머리말

돼지오제스키병의 원인체는 Herpesviridae (허피스바이러스)의 Alphaherpesvirinae 아과에 속하는 바이러스로 돼지에 자연 감염되며 사람을 제외한 다른 포유류 및 척추동물에 광범위한 숙주영역을 갖는다. 어린 돼지는 치사율이 높고 성돈은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한 불현성 감염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증상은 41℃ 이상의 발열, 식욕부진, 침울, 기침, 구토, 설사, 드물게 변비 등이 있으며, 운동을 싫어하고, 자극에 민감하게 된다. 신경증상을 나타내면 예후가 좋지 않으며, 나타낼 수 있는 신경증상으로는 후지의 진전, 실조, 긴장, 전간성 발작, 경련, 사지강직, 황와, 혼수상태가 되어 12시간 후에는 폐사한다. 주로 직접접촉 또는 태아를 통한 수직전파에 의하여 감염되며, 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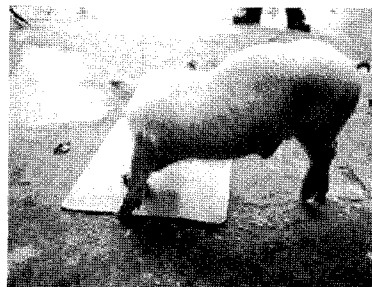
번 감염된 돼지는 바이러스 유전자(virus genome)를 계속적으로 가지며, 기후의 변화 등의 스트레스에 의하여 바이러스를 배설한다. 그러므로, 감염 돈군에 대한 주기적인 검사·도태와 이동통제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

농림부에서는 제도적으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돼지오제스키병의 근절을 위한 “돼지오제스키 방역실시요령”을 6차례 개정하여 강화하였고, 동 실시요령에 의거 임상증상을 보이는 돼지는 살처분·매몰하고 혈청검사에서 양성 확인된 개체는 도축장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도태하여, 전국적인 발생양상은 점차적으로 감소되어가고 있지만, 일부지역에서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추세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는 악성 가축전염병인 돼지오제스키병의 확산방지 및 조기근절을 위하여 연간 돼지오제스키병의 혈청 검사



◀ 오제스키병은 자돈의 폐사 뿐만 아니라 번식장애, 비육돈의 성장저하 등으로 심한 경제적피해를 보게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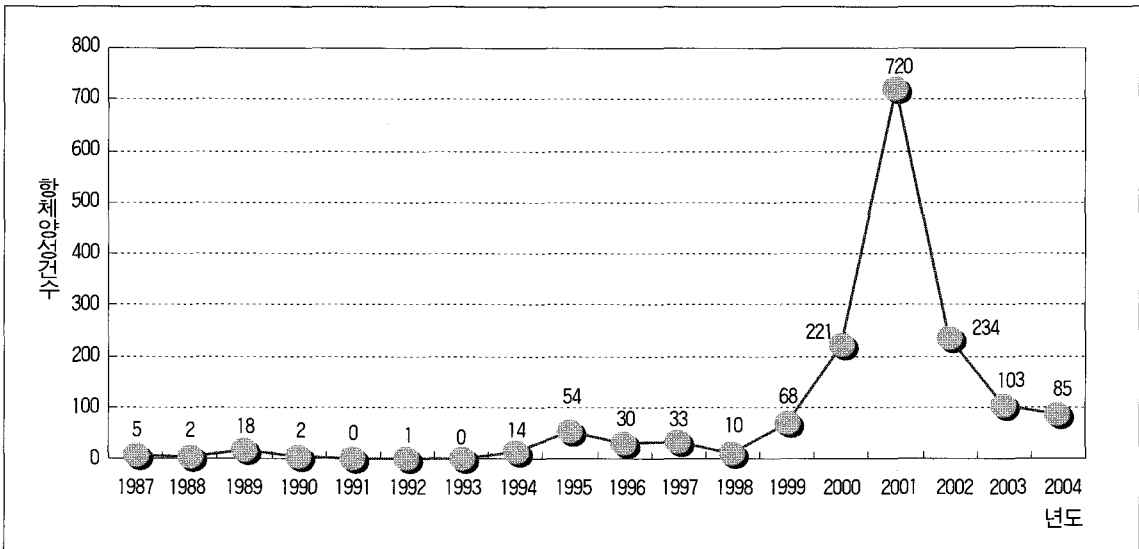
◀ 오제스키병으로 심한 신경 증상을 보이는 돼지



〈표 1〉 돼지오제스키병 방역실시요령(농림부 고시 제2001-68호)

구분	조치사항	비고
임상 증상 유	살처분후 소각 또는 매몰	• 돼지 살처분 또는 도태완료 후 조치사항
임상 증상 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두수 살처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발생지역(반경 3km비발생)에서 양성율 10% 이하 • 양성율 30%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번식돈 전두수 도태권고 • 양성율 30% 미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성번식돈 도태권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0일 이동제한 조치 후 비발생농장인증 검사신청가능 - 신청후 검사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검사횟수 : 3월 간격 연속 2회 실시 2. 검사두수기준 : 종모돈·종빈돈·모돈·후보 모돈은 전두수, 기타 육성돈·자돈 등은 전체 사육두수의 10%이상

〈그래프 1〉 연도별 돼지오제스키병 발생건수('87~'04)



량을 각 시·도에서 검사하도록 시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취합하여 지속적인 혈청검사 결과를 데이터화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질병발생동향을 분석하고 감염돼지의 살처분·도태 등 근절기반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현재 고시되어있는 돼지오제스키 방역실시요령의 주요 내용은 〈표 1〉과 같다.

2. 발생현황

가. 연도별 돼지오제스키병 발생현황

돼지오제스키병은 '87년 경남 양산군에서

최초 발생이후 매년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04년까지 경북과 제주를 제외한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다. 〈그래프 1〉에서 볼 때, '99년 이후 돼지콜레라 근절 대책이 강화되면서 유사돼지 질병에 대한 검색이 또한 가일층 강화되어, 그동안 검색되지 않았던 돼지오제스키병 양성건수가 자연히 대폭 증가되었다. 특히 '01년에는 전북 익산지역에서 돼지오제스키병이 집단적으로 발생되고 이로 인한 인근 농장의 확대검사 등으로 검색건수가 높아졌으며, 양성건수도 최고치로 기록되었다.

연도별 총 발생건수의 추이를 볼 때 '01년 720건, '02년 234건, '03년 103건으로 해마다 감소

〈표 2〉 '01년~'04년 돼지오제스키 발생지역

년 도	지 역	농가수	시·군별(발생건수)	지역수
2001	경 기	170	고양(2), 광주(1), 안성(27), 연천(1), 용인(132), 이천(2), 평택(1), 화성(4)	17
	강 원	6	철원(6)	
	경 남	2	김해(1), 산청(1)	
	전 북	528	익산(524), 부안(3), 정읍(1)	
	충 남	14	보령(1), 서천(3), 홍성(10)	
2002	경 기	69	용인(44), 안성(21), 이천(3), 화성(1)	14
	전 남	8	함평(1), 구례(2), 순천(3), 장흥(1), 해남(1)	
	전 북	150	익산(149), 완주(1)	
	충 남	5	홍성(4), 당진(1)	
	충 북	2	제천(2)	
2003	경 기	31	안성(5), 용인(19), 화성(5), 양주(1), 포천(1)	10
	강 원	10	철원(10)	
	전 북	56	익산(56)	
	충 남	6	당진(2), 홍성(1), 예산(3)	
2004	경 기	3	화성(1), 용인(1), 양주(1)	10
	전 남	1	구례(1)	
	전 북	16	익산(16)	
	경 남	64	김해(57), 고성(3), 창녕(3), 양산(1)	
	울산광역시	1	울주(1)	

하고 있는 추세이다. '04년의 발생상황은 12월까지 확인건수 85건으로, '03년의 발생누계 103건과 비교하여 '04년도에는 전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은 발생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잠복 감염돈의 입식 및 딸이돼지의 구입 등에 의하여 경남지역에 상당 규모의 확산을 가져와 현재까지 강화된 혈청검사 및 방역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나. '01년 이후 지역별 현황

〈표 2〉에서 보는바와 같이, '01년도 이후 화성, 용인, 익산 지역은 현재까지 매년 반복 발생되고 있으며 김해지역은 금년도 발생되어 인근 창녕, 고성, 양산 및 울산 지역으로 전파되었다. 또한 안성, 홍성 지역도 '01년부터 '03년까지 매년 반복 발생되어 향후 재발 우려가 높은 지역으로 분석된다.

다. '04년도 항체양성축의 발생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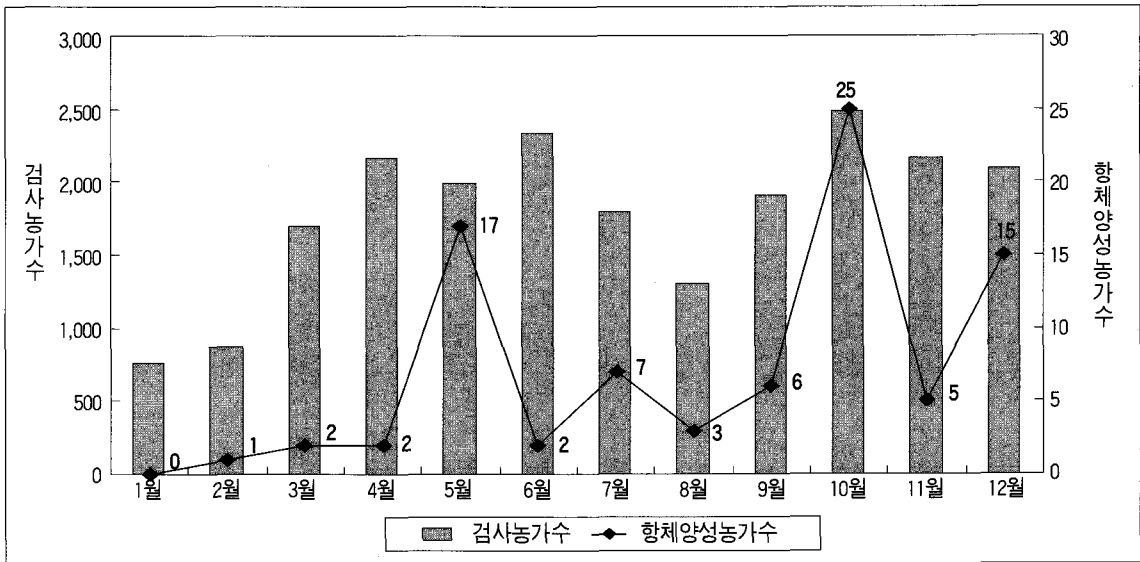
'04년 발생현황은 〈표 3〉과 같이 총 85농가 2,826두

〈표 3〉 '04년 돼지오제스키 월별 발생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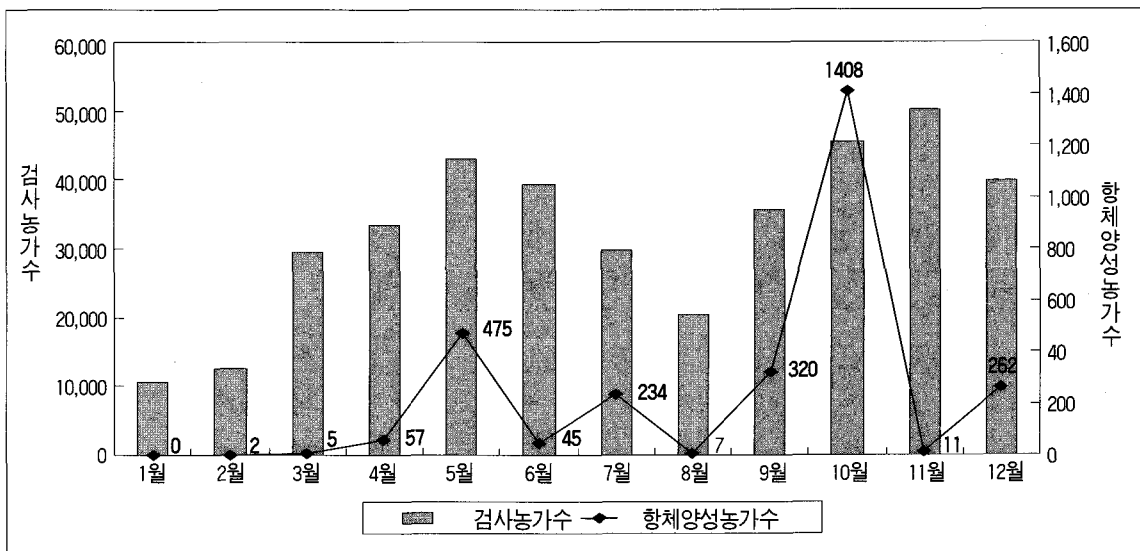
월 별	농가수	두 수	항체 양성 시·군	비 고
1월	0	0		발생없음
2월	1	2	경기 화성시	기존발생
3월	2	5	경기 용인시, 전남 구례군	기존발생(1), 신규발생(1)
4월	2	57	경남 고성군, 김해시	신규발생(2)
5월	17	475	전북 익산시, 경남 김해시, 창녕군	기존발생(8), 신규발생(9)
6월	2	45	경기 양주군, 경남 고성군	기존발생(1), 신규발생(1)
7월	7	234	전북 익산시, 경남 김해시	기존발생(8)
8월	3	7	전북 익산시, 경남 고성군	기존발생(3)
9월	6	320	경남 김해시	기존발생(5), 신규발생(1)
10월	25	1,408	경남 김해시, 양산시, 울산 울주군	기존발생(5), 신규발생(20)
11월	5	11	전북 익산시, 경남 창녕군	기존발생(3), 신규발생(2)
12월	15	262	경남 김해시	기존발생(15)
계	85농가 (중복37)	2,826	경기 화성, 양주, 용인, 전북 익산 경남 김해, 고성, 양산, 창녕 전남 구례, 울산 울주	기존발생(12),신규발생(36)



〈그래프 2〉 '04년 검사농가별 돼지오제스키 발생현황



〈그래프 3〉 '04년 검사두수별 돼지오제스키 발생현황



에서 양성인 확인되었고 이 중 37농가는 혈청 검사 결과 중복하여 양성축이 확인된 농가이다. 특히 금년도에는 김해지역에서 발생되어 인근 창녕, 고성 및 울산지역으로 전파되어, 신규 발생농장의 수가 전년도에 비하여 높아진 점이 특징이다.

3. '04년도 검사진행률 및 결과분석

가. 혈청검사물량 및 검사진행률

'04년 총 검사두수는 389,762두이며, 검사진행률은 연간 계획 대비 110%(총검사두수/355

천두)이며, 시·도 시험소별 검사진행 물량은 충남, 경기, 전북 순이며, 목표물량대비 검사진행률은 강원(147.7%), 서울(133%), 검역원(127.7%) 순으로 나타났다.

나. '04년 혈청검사결과분석

'04년 총 검사물량의 번식돈과 비육돈의 비율은 54대 46로 번식돈의 비율이 약간 높으나 전년도 즉 '03년의 번식돈 대 비육돈의 비율인 62대 38에 비하여 볼 때 금년도 검사 번식돈의 비율이 낮아져 향후 모돈 위주의 검사가 촉구된다.

〈그래프 2〉에서 총 21,573농가를 검사한 결과 85농가에서 양성이 확인되어 검사농가대비 항체 양성률은 0.39%로 산출되었으며, 〈그래프 3〉에서는 검사두수대비 항체 양성률이 0.73%(389,762두 중 2,826두 양성)로 나타난 것으로 보아, 금년도에는 양성 농가에서 다수의 감염개체가 확인되어 농가 단위별 방역강화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4. 2005년 전망 및 대책

'04년 혈청검사 결과 항체양성농가는 지역별로 울산광역시(1농가), 경기 화성(1농가), 용인(1농가), 양주(1농가), 전남 구례(1농가), 경남 김해(26농가), 창녕(2농가), 고성(1농가), 양산(1농가), 전북 익산(13농가)의 5개 시·도에서 확인되었다. 전북 익산 왕궁면에서는 '01년 발생이후 매년 지속 발생되고 있으며, 근절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검색이 되어 상재화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03년 항체음성지역이었던 전남(구례), 경남(고성, 김해, 창녕), 울산광역시 지역에서 잠복

감염돈의 입식 등에 의해 신규 발생하였고, 특히 경남 지역의 경우 떨어돼지의 구입으로 신규 발생된 농가에서 판매한 비육돈의 이동경로를 따라 인근 농장에 급속히 전파된 결과, 지금까지 추가 발생되고 있다. 경남 지역 양돈농가가 대다수 김해지역에 집중되어 있으므로 타 일반지역에 비하여 근절대책이 더욱 세심하게 수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발생되지 않은 타 지역으로의 확대를 막기 위해서는 그동안 전파의 주요한 원인이 되었던 감염축의 이동에 관한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어진다.

'05년도에는 전년도에 대규모로 발생했던 경남지역의 방역수행 결과에 의하여 전국적인 양성의 추이가 좌우될 것으로 보이며, 전북익산 지역에서는 계속적으로 오제스키질병이 상재되어 재발하고 있으므로, 보다 적극적인 지역차원의 방역대책 및 근절노력이 요구되어진다. 또한, 최근 몇 년 동안 계속 발생하였으나, 전년도에는 양성이 확인 되지 않았던 경기 및 충남 지역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검사 및 관찰과 더불어, 발생시 신속하고 정확한 방역활동을 통해 조기에 양성축을 도태하여 재발을 방지하는 것이 요구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제 돼지오제스키병이 전국적으로 다발하던 단계에서 벗어나 지역적인 특성을 이루고 있고, 양성건수도 줄어들고 있으므로 보다 지역적인 강력한 발생방지 대책이 필요하며, 빈번한 혈청검사를 통해 양성축을 계속적으로 도태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양돈**

